

현대 중국어 다품사어 ‘自+X’의 형태-통사적 특징

장 호 득*

국문초록

본고는 『現代漢語詞典』(第七版) 표제어의 2음절 ‘自+X’ 구조 가운데 2개 이상의 품사를 갖는 다품사어를 전수조사(全數調査)하여 추출한 후 목록화하고 분류하여 그 형태-통사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自+X’는 내부 구조의 재분석을 통해 형태-통사적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은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된다.

둘째, 다품사인 ‘自+X’ 구조는 그 형태만으로는 다품사 중의 개별 품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구조의 통사적 생성·도출 과정을 통해 ‘自+X’ 중 ‘自’의 재귀성과 조응성, ‘自+X’의 명사성, 동사성, 형용사성, 부사성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그 정체성을 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통사적 도출 과정에서 형용사가 격 표시의 도움 없이 부사어로 도출된다는지, 부사가 부사어격 표시 ‘地’와 함께 병합하여 다시 부사어로 도출되는 현상은 ‘自+X’ 구조의 내현적 분산형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다품사어 ‘自+X’ 구조에서 품사를 구분 짓는 명확한 형태적·구조적 기준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 구조의 재분석을 통해 그것이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 특징을 가지면서 형태론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층차까지 연결되어 형태-통사적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현대 중국어, 다품사어, ‘zi(自)+X’, 통합합성어, 형태-통사

목 차

- | | |
|----------------------------|----------------------------|
| I. 서론 | IV. 형용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 |
| II. 명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 | V. 결론 |
| III. 동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 | |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교수 / sinodesk@hanmail.net

I. 서 론

본고는 『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 보이는 ‘自+X’ 구조 가운데 다품사로 표시된 어휘를 전수조사(全數調査)하여 추출하고 목록화한 후 분류하고 분석하여 그 형태-통사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음절 ‘自+X’ 구조 가운데 『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서 다품사어로 실린 표제어는 【自動】¹, 【自負】², 【自覺】³, 【自然】⁴, 【自然】⁵, 【自恃】⁶, 【自是】⁷, 【自是】⁸, 【自述】⁹, 【自由】¹⁰, 【自重】¹¹, 【自重】¹², 【自足】 등 총 14개이다. 이들 표제어의 모든 품사를 종합한 후 주요 품사인 명사, 동사, 형용사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이 품사를 포함한 표제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경향성을 구명(究明)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고는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¹³의 이론과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생성문법이론과 방법을 중심으로 수형도와 함께 필자의 방식을 추가하여 논지를 전개하면서 분석적 타당성과 설명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즉, 기존의 분산형태론을 중심으로 본고는 하나의 어휘가 형태론적 측면에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 구조를 재분석하면 통사적 층위의 특징과 기능도 내현적(covert), 외현적(overt)으로 관여하면서 통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s)로 생성·도출된다는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 나오는 다품사어 ‘自+X’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기에 그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이므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는 소략하기로 한다. 다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自己’ 등의 연구를 소개하면 지배·결속 이론,²⁾ 특히 장거리 결속에 대한 논의로 徐烈炯(1988, 311~316쪽), 宋國明(1997, 178~193쪽), 徐杰(2001, 77~80쪽), 石定栩(2002, 241~243쪽), 溫賓利(2002, 158~159쪽), 陸曉明·沈陽(2004, 209~217쪽) 등이 있다.³⁾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품사어인 2음절 ‘自+X’ 구조가 어떻게 형태-통사적으로 생성·도출되는지 아래 본문에서 그 정체성을 규명(糾明)해 나가겠다.

1) 분산형태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소영(2011)과 박소영(2017)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박소영, 「한국어 통합합성어의 통사구조와 형태: 통사론의 접면」, 『생성문법연구』 21: 4, 한국생성문법학회, 2011, 685~706쪽; 박소영,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어 문법」, 『우리말연구』 49, 2017.04., 91~121쪽).

2) “조용소(anaphor)란 그 자체로는 어떤 대상을 지시할 수 없고 반드시 선행사를 통해서 그 지시 대상이 결정되는 어휘나 구로서 재귀대명사, 상호대명사, 명사구의 흔적 등이 조용소에 속한다.……결속이론은 대명사와 재귀대명사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이론으로서……결속조건은 재귀대명사, 상호대명사, 명사구의 흔적 등의 조용소는 특정 영역 내에서 선행사를 가져야 하고 대명사는 이 영역 내에 선행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런 영역을 지배 범주(governing category)라고 하고, 선행사를 갖는 것을 결속(bind)된다고 한다.”(김동석, 『통사론 강의』, 형설출판사, 2002, 195쪽, 220쪽); “재귀사(再歸詞, reflexive)의 대용화(anaphora) 현상 중의 하나로, 재귀사가 그가 속한 절의 경계를 넘어 상위절의 명사구에 결속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김용석, 『최소주의 재귀사 문법』, 한국문화사, 1999, 141쪽).

3) 관련 내용은 유연균(2008)에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유연균, 「중국어 재귀대명사의 기능 및 그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6~24쪽).

II. 명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

본 장에서 명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를 분석하기 전에 공통 요소인 ‘自’에 대해 살펴보고 논지를 전개하겠다. 하영삼은 『한자어원사전』에서 ‘自’에 대해 “코를 그렸는데, 앞에서 본 모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⁴⁾ 또 “여기에서 自己(자기), 自身(자신)이란 뜻이, 自由(자유)는 물론 自然(자연 : 스스로 그러함)의 뜻까지 생겼다. 그러자 원래의 ‘코’는 소리부인 冎(줄-비)를 더해 鼻(코-비)로 분화했다.”⁵⁾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自’의 원래 의미는 ‘코’였는데 이후 다른 의미로 가차(假借)되어 쓰이면서 그 원래 의미를 살린 鼻(코-비)가 나와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코’라는 원형 의미(prototype meaning)는 ‘自+X’ 구조로 통합합성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통사적 기능과 특징이 연결되지 않지만 ‘自述’, ‘自重’ 등처럼 형태-통사적 층위의 생성·도출에서는 ‘자기’, ‘자신’ 등의 확장 의미(extending meaning)로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의 관련 표제어 설명에도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自’가 2개의 표제자로 나뉘어 실려 있다. 첫 번째 표제자에는 ‘『대사』 자기’, ‘『부사』 자연히’, ‘『명사』 성씨’ 등의 풀이로 실려 있고,⁶⁾ 두 번째 표제자에는 ‘『개사』……(로)부터’의 풀이로 실려 있다.⁷⁾ 또 施光亨·王绍新은 대명사의 형태소로 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 자신’의 뜻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개사로서 ‘……(로)부터’, 부사로서 ‘당연히, 자연히’의 뜻으로 풀이도 하고 있다.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自+X’ 구조 형성 과정에서 ‘自’가 어떤 의미와 기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다품사어가 되어 형태-통사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장에서는 명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의 구조를 수형도⁹⁾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명사를

4) 【自】(스스로-자): “상형. 코를 그렸는데,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 서양인들이 코를 그릴 때 주로 측면의 모습을 그리는데 반해, 동양인들은 정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것은 서양인들의 코가 높지만, 동양인들은 납작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코는 후각 기관이자 숨을 내쉬는 기관이기에 자는 ‘냄새’나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 코는 얼굴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가장 심한 부위이기에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여기에서 自己(자기), 自身(자신)이란 뜻이, 自由(자유)는 물론 自然(자연 : 스스로 그러함)의 뜻까지 생겼다. 그러자 원래의 ‘코’는 소리부인 冎(줄-비)를 더해 鼻(코-비)로 분화했다. 중국인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와는 달리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습관도 이와 관련된 듯 보인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532쪽).

5) 하영삼, 위의 책, 5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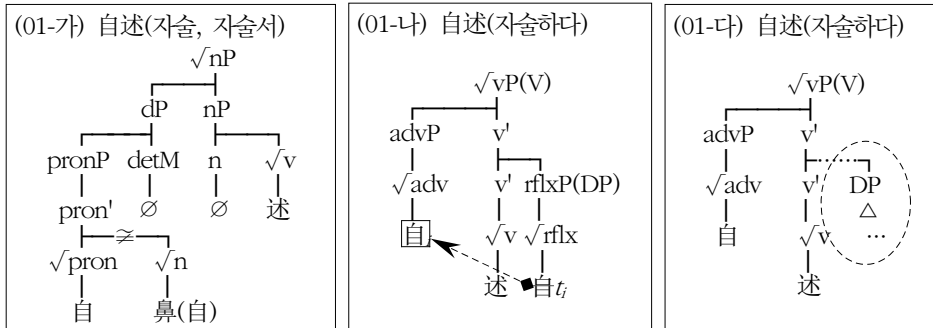
6) “【自】 [zi] ①『代』自己: 自动 | 自卫 | 自爱 | 自力更生 | 自言自语 | 自娱自乐 | 自告奋勇 | 自顾不暇 | 不自量力。②『副』自然; 当然: 自不待言 | 公道自在人心 | 两人久别重逢, 自有许多话说。③ (Zì) [名] 姓。”(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36쪽).

7) “【自】² [介] 从: 由: 自小 | 自此 | 自古 | 自远而近 | 自北京出发 | 选自《人民日报》 | 来自各国的朋友。”(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위의 책, 1736쪽).

8) “【自】 ①『代素』self; oneself; one's own 自己: 他独自一人出门去了 | 我是自费来中国学习汉语的。②『代素』(indicating doing sth. by oneself) 跟单音节动词性语素搭配, 构成动词, 表示动作由自己发出, 不是受别人影响或推动的: 他没有上过大学, 全靠自学成才。③『代素』(indicating agent and object as identical) 跟单音节动词性语素搭配, 构成动词, 表示自己是动作的发出者, 时也是接受者: 我常常自问, 作出最大的努力了没有? ④『介』from; since 从. 多用于书面语. a, 表示时间的起点: 本规定自9月1日起实行. b, 表示处所的起点: 本次列车自北京开往武汉(Wūhàn). ⑤『副』certainly; of course; naturally 自然. 多用于书面语: 既然是好事, 自会得到大家的支持。”(施光亨·王绍新主编, 『汉语教与学词典』, 商务印书馆, 2011, 1422~1423쪽).

9) ① 수형도 ‘ㄴ’와 ‘ㄷ’의 상하 절점은 핵어를 나타낸다. 절점과 가지를 기존의 ‘^’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핵어’를 명확하게 표

중심으로 동사도 갖고 있는 다품사어 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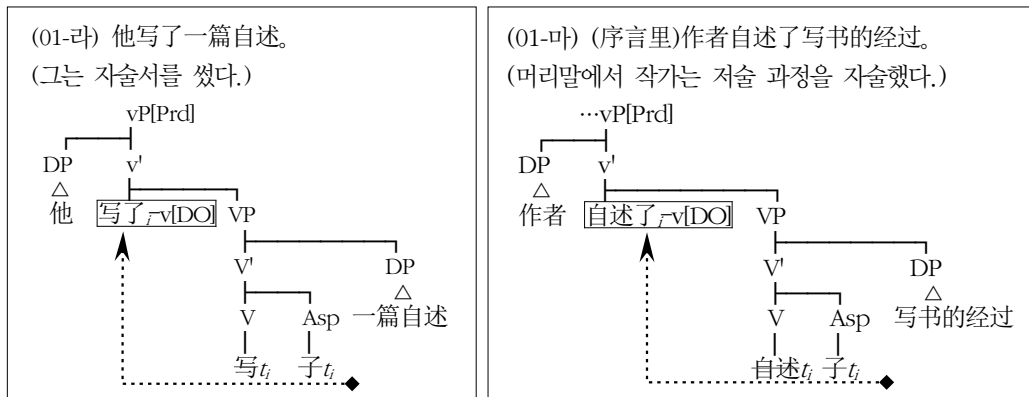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은 ‘自述’를 명사와 동사로 풀이하고 있다.¹⁰⁾ 그중 (01-가)는 명사성 어근구($\sqrt{nP}$)¹¹⁾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수형도이고, (01-나, 다)는 동사성 어근구($\sqrt{vP}$)¹²⁾를 생성하는 과정

시하기 위해서이다. ② ‘xP’(첫 철자를 소문자로 표시)는 형태적인 단어나 구의 특징뿐만 아니라 통사구조에서 어근구로 투사되어 형태-통사적 특징을 내현적(covert)으로 내포하는 ‘분산형태론적(distributed morphological)’ x성 통합함성어도 가리킨다. 또 통사구조에서 ‘사건구조화 층위’에 있는 경x구 가리키기도 한다. ③ ‘XP’(첫 철자를 대문자로 표시)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통사적으로 X구(중간 계층이 필요한 경우 ‘X’로 표시)로 투사되어 생성·도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④ 부호 가운데 ‘≅’는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가차 관계, 확장 관계 등의 의미·통사적 연결 고리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는 ‘의미·형태-통사적으로 비슷하지 않고 그 연결 고리도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본 내용은 장호득(2021a, 337쪽)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0) “【自述】[zìshù] ①〔动〕自己述说自己的事情：序言里作者自述了写书的经过。②〔名〕关于自己情况的叙述：他写了一篇自述。”(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39쪽).
- 11) 기존의 형태론 관점으로만 보면 ‘명사’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어휘 배열 층위: DP(한정사구, 비한정적인 ‘NP’의 상대적 개념), NP(명사구), VP(동사구), AdjP(형용사구, 술어인 경우도 포함), DetP(Determiner Phrase, 관형사구, 표지 ‘的’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AdvP(부사구, 표지 ‘地’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CmpP(보어사구, 표지 ‘得’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PP(전치사구), NegP(부정사구), ModP(Modal Phrase, Modality Phrase, 양태사구), NphrP(조용사구), $\sqrt{P}$ (Root Phrase, 어근구), Num(수사), Cls(양사), N(명사), (Ntm, 시간사), Npl(처소사), Pron(대사), D(한정사), Det(관형사), Nphr(anaphor, 조용사, 전방 조용사), Cphr(cataphor, 후방 조용사), Rflx(reflexive pronoun, 재귀대명사), Rcpr(reciprocal pronoun, 상호대명사), Refr(Reference, 지시사, 지시 표현, 지칭사), Prof(Proform, 대용사), V(동사), Vt(transitive, 타동사), Vi(intransitive, 자동사), Vdt(dative, 여격동사, 수여동사), Vmv(move, 이동동사), Vpl(place, 처소동사), Vgc(go and come, 왕래동사), Vsa(start and arrive, 발착동사), Vdn(dynamic, 동작동사), Vst(static, 정태동사, 상태동사), Adj(형용사), Dstn(Distinctive, 구별사), Mmt[mimetic words, 상태사, cf. onomatopoeic words(의성어)], Aux(조동사), Adv(부사), P(개사), Vrs[부동사(副動詞), 결과(resultative)], Vtn[부동사, 추향(trend)], Vpt[부동사, 가능(potential)], Vdgl[부동사, 정도(degree)], Vst[부동사, 상태(stative)], Neg(Negative, 부정사), Mod(양태사), DetM(Determiner Marker, 관형어격 표지), AdvM(Adverbial Marker, 부사어격 표지), CmpM(Complement Marker, Complement Particle, 보어격 표지), $\sqrt{P}$ (Root, 어근), $\emptyset$ (영형태), ‘(prime, 어갯점, 바, 중간 계층), xF[x affix, x화 기능범주(접사), Functional affix; affix(접사), prefix(접두사), infix(접중사), suffix(접미사)] (2) 사건 구조화 층위(첫 철자 소문자): [BE, DO, BECOME, CAUSE-BECOME], vP, adjP(형용사가 술어인 경우); v, adj cf. 형태론에서 소문자는 분산형태론의 통합함성어에서 통사구조로 도출되기 전의 상태 또는 형태소를 의미함. (3) 사건과 현실 연결 층위: TP(시제사구), AspP(동작상구), TopP(Topic Phrase, 주제구), PrtP(조사구, 어기사구, Particle Phrase); T(시제사), TnsM(Tense Marker, 시제 표지), AspM(Aspectual Marker, 동작상 표지), Top(Topic, 주제), Prt(조사, 어기사, 어소) cf. INFL(Inflexion, 굴절소). (4) 문장 유형(sentence type) 확정 층위: CP(보문사구), MdP(Mood Phrase, 서법구); C(Complementizer, 보문사), Md(서법 표지) cf. 서실법(敍實法, fact mood), 서상법(敍想法, thought mood). (5) 역할제 모듈(Module) 구현 층위: Sbj(Subject, 주어), Prd(Predicate, 술어), Obj(Object, 목적어), Spec(Specifier, 명시어), Advl

을 보여주는 수형도이다. (01-가)는 원형 의미인 ‘코’를 뜻하는 명사성 어근 ‘鼻’가 ‘自述’의 형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뜻하는 대사성 어근($\sqrt{\text{pron}}$)이 대사성 구(pronP)로 투사되어 영형태의 한정사성 표지(detM)와 함께 한정사성 구(dP)로 투사되어 ‘자신의’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뒤에 오는 ‘述’는 ‘서술하다’¹³⁾라는 뜻의 동사성 어근구($\sqrt{\text{v}}$)로 도출된 후 영형태의 명사성과 함께 명사성 구(nP)로 투사되고 앞의 ‘自’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自述’라는 명사성 어근구($\sqrt{\text{nP}}$)를 생성하고 있다. 이 명사성 어근구는 형태론적으로 보면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의 풀이처럼 하나의 ‘명사’이지만 위 수형도를 보면 ‘自’와 ‘述’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통사적 층위의 어근구($\sqrt{\text{P}}$)를 선제적으로 형성하여 분산형태적 특징을 띠고 있다. (01-나)는 동사성 어근($\sqrt{\text{v}}$) ‘述’ 뒤에 재귀사 어근($\sqrt{\text{rflx}}$) ‘自’가 투사되어 흔적을 남기고 이 ‘自’가 ‘述’ 앞에서는 부사성 어근($\sqrt{\text{adv}}$)으로 투사되어 함께 동사성 어근구($\sqrt{\text{vP}}$) ‘自述’를 생성하고 있다. 이때 ‘述’ 앞의 ‘自’가 조응사(anaphor)로 투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述’의 대상역(theme role) 목적어인 재귀사 어근($\sqrt{\text{rflx}}$) ‘自’가 흔적을 남긴 자리에 목적어가 오지 않아야 하는데 (01-마)에서처럼 대상역 목적어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01-나) ‘自述’의 ‘自’를 ‘(자기 자신이) 친히, 스스로’의 부사성 어근($\sqrt{\text{adv}}$)으로 보거나, (01-다)처럼 낱말로 형성되는 초기부터 바로 ‘述’ 앞에서 부사성 어근($\sqrt{\text{adv}}$)으로 투사된 후 ‘自述’이 ‘부사어성+술어성’의 내부 통사구조로 생성된다. 그리하여 동사 ‘自述’은 점선 원 안처럼 목적어 대상역인 한정사구(DP)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성 통사적 기능을 띠면서 내현적(covert)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로 생성·도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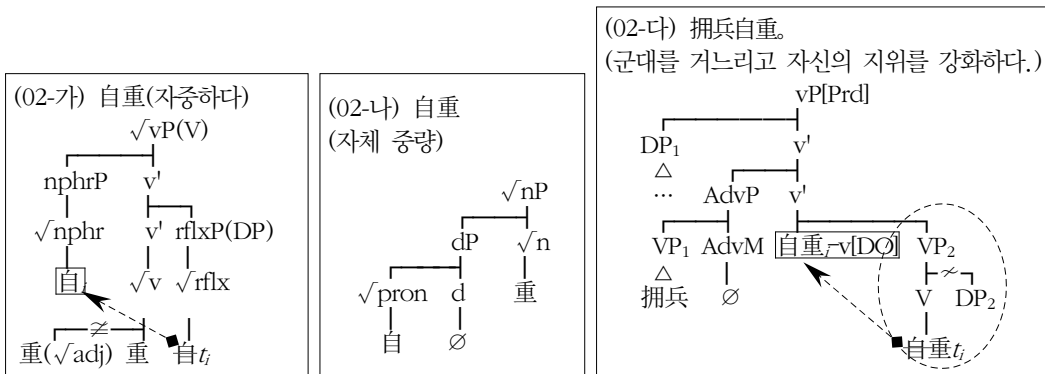
(Adverbial, 부사어), Cmpl(Complement, 보어), Mood(Mood Particle, 서법어), Mrkr(Marker, 표지어) cf. 기타 생성문법 용어: Head(핵어; 中心词), Specifier(Spec; 명사어/지정어; 指定语), Attribute(귀속어; 归属语), Complement(보충어; 补语), Adjunct(부가어/첨가어/부사어; 附加语), 종속어(dependents): Pre-adjunct(pre-nominal, 전치 부가어, 전치 명사성 어구), Post-adjunct(후치 부가어)]. 본 내용은 장호득(2021a, 335~336쪽)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2) 기존의 형태론 관점으로만 보면 ‘동사’를 가리킨다.

13) 【述】(말할-술): “형성. 走(쉬엄쉬엄 갈-착)이 의미부고 走(차조-출)이 소리부로, 길을 다니며(走) 곡물(走, 稂의 본래 글자)을 내다 팔고 떠벌리며 선전함을 말했고, 이후 記述(기술)하다, 敘述(서술)하다 등의 뜻이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390쪽.)

(01-라)의 ‘自述’는 (01-가)의 명사성 어근구($\sqrt{\text{nP}}$)의 생성에서 온 것으로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写’의 대상역인 한정사구(DP) 안에서 명사로 투사되고 있다. (01-마)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自述’가 동핵 구조¹⁴⁾로 흔적을 남기고 경동사구로 투사되고 있는데, 그 뒤의 한정사구(DP) ‘写书的经过’(저술 과정)가 대상역으로 투사되고 있으므로 (01-나)처럼 ‘自’를 분산형태로 분석하더라도 조응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自’는 재귀사로서 조응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사성 어근($\sqrt{\text{adv}}$)이 되면서 ‘自述’도 목적어를 대상역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로서 술어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自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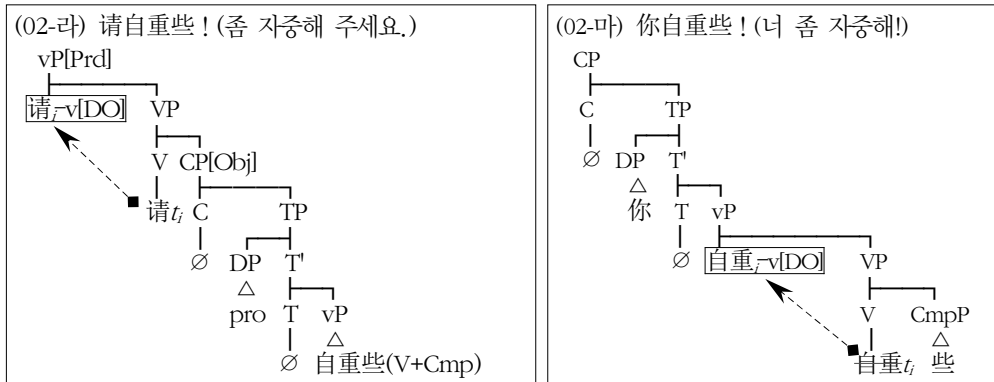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는 ‘自重’도 명사와 동사의 다품사어로 신고 있는데 앞의 ‘自述’와 다른 점은 2개의 표제어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그중 하나는 ‘명사’로서 ‘자체의 무게’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로 ‘자신을 중요시하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영삼의 『한자어원사전』에 따르면 ‘重’을 노예들이 짊어져야 하는 힘들고 과중한 노동력에서 ‘무겁다’가 나왔고 다시 ‘중시하다’, ‘중요하다’ 등의 뜻이 나왔다고 풀이하고 있다.¹⁶⁾ (02-가)는 ‘自’가 ‘重’ 뒤에서 재귀사 어근으로 투사되어 대상역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고 ‘重’ 앞에서 조응사 어근으로 투사되고 있다. 즉, 통사적으로 재분석하면 ‘自’는 ‘중요시하다’, ‘중시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성 어근 ‘重’의 대상역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고 또 ‘自重’ 앞에 올 행위자 의미역의 주어를 가리키는 조응사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동사성 어근구 뒤에는 (02-라)처럼 보아 역할의 의미역은 올 수 있지만 목적어 역할의 대상역은 올 수 없는 것이다. (02-나)는 ‘自’가 재귀사성 어

14) 동핵 구조는 김종호(2018)를 참조하기 바람(김종호, 『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130-131쪽).

15) “【自重】[zìzhòng]『动』① 注意自己的言行：自爱自重！请自重些！② 〈书〉抬高自己的身份、地位：拥兵自重。”“【自重】[zìzhòng]『名』机器、运输工具或建筑物承重构件等的本身的重量。”(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41쪽).

16) 【重】(무거울-중): “형성. 소전체에서 人(사람-인)이 의미부이고 東(동녘-동)이 소리부인 구조였으나, 소전체에서는 丩(줄을-정)이 의미부이고 東이 소리부인 구조로 바뀌었으며, 자형이 줄어 지금처럼 되었다. 원래 童(아이-동)에서 분화된 글자로, 그러한 노예(童)들이 짊어져야 하는 힘들고 과중한 노동력을 그렸으며, 이로부터 무겁다, 過重(과중)하다, 힘들다, 심하다, 重視(중시)하다, 重要(중요)하다 등의 뜻이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6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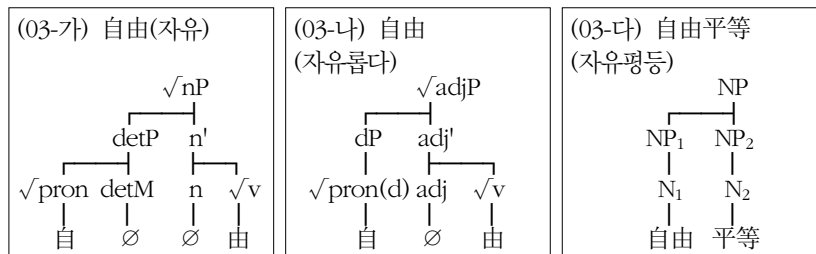
근이 아닌 대사성 어근으로 ‘重’이라는 명사성 어근 앞에 와서 명사성 어근구를 형성하여 ‘자신의 무게’, ‘자체 중량’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自’가 한정사성 구로 투사될 때는 영형태로 투사되어 내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02-다)는 ‘自重’이 (02-가)처럼 재귀사 및 조응사의 특징을 내현적으로 띠고 있어 점선의 원 안처럼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自重’의 목적어인 한정사구(DP₂)가 대상역으로 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02-가)의 동사 ‘自重’이 갖고 있는 분산형태적 통합합성어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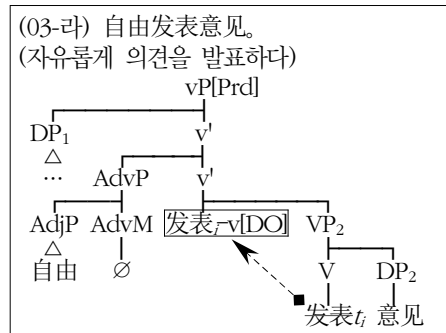
(02-라)는 ‘自重’이라는 동사가 통사적 층위에서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로서의 기능을 보여 주고 있는 수형도이다. 즉, 여기에서 한정사구(DP) ‘你’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自重’의 ‘自’와 내현적으로 조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02-마)의 수형도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한정사구(DP)의 ‘你’와 ‘自重’의 ‘自’와 조응하고 있고,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는 CmpP인 ‘些’가 ‘自重’의 보어로 투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自’의 재귀성과 조응성으로 인해 ‘自重’의 대상역은 직접 목적어로 투사되지 못하는 것이다.¹⁷⁾

이상에서 보듯이 ‘自重’은 일반 형태론적으로 보면 동사에 불과하지만 분산형태론적 관점으로 내부 구조를 재분석하면 자체적으로 통사적 생성·도출의 채비-대상역의 출현 가능 여부 등-를 하고 있는 내현적 통합합성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와 ‘형용사’로 된 다품사어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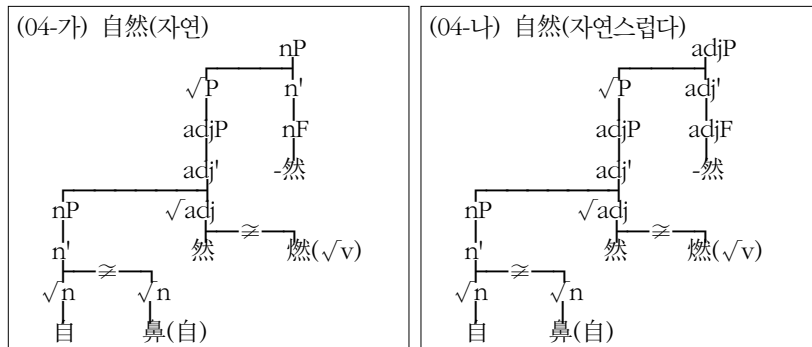
17) “只好自重一点。”(좀 자중할 수밖에 없다.)도 ‘一点’과 같은 보어가 투사되고 있다(教育部语言文字应用研究所计算语言学研究室, <http://corpus.zhonghuayuwen.org/CnCindex.aspx>, 검색일: 2021. 02. 15.). ※ 간접 목적어를 못 가짐.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은 ‘自由’를 ‘명사’와 ‘형용사’로 풀이하고 있다.¹⁸⁾ (03-가)는 ‘自由’가 명사성 어근($\sqrt{nP}$)을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분산형태적 수형도이다. 그 과정에서 ‘自’는 대사성 어근($\sqrt{\text{pron}}$)으로서 영형태 관형어격 표지와 함께 관형사구(detP)로 투사되고 있고, ‘由’는 ‘말미암다’¹⁹⁾의 동사성 어근($\sqrt{v}$)으로서 영형태의 명사성과 결합하여 명사성 어근구($\sqrt{nP}$)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03-나)는 (03-가)와 달리 형용사성 어근구($\sqrt{\text{adjP}}$)를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수형도이다. 대사성 어근으로 투사되는 ‘自’와 동사성 어근 ‘由’가 병합하면서 영형태의 형용사성이 투사되어 형용사성 어근구를 형성하고 있다. (03-다)는 명사성 어근 ‘自由’가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명사로 투사되어 도출되고 있는 수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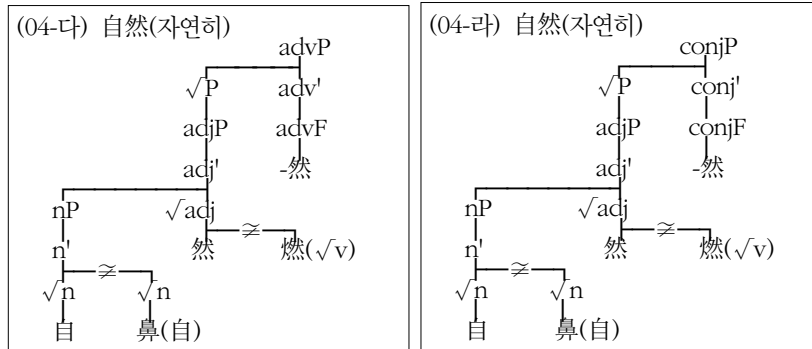
(03-라)는 형용사성 어근구 ‘自由’가 통사적 층위에서 부사구로 투사되어 경동사인 ‘发表’(발표하다)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부사어격 표지 ‘地’ 없이 영형태로 형용사 ‘自由’가 ‘자유롭게’라는 뜻의 부사어 역할로 바로 도출되고 있다. 이것은 형용사성이 부사성 특징을 내부적으로 띠고 있는 내현적 통합합성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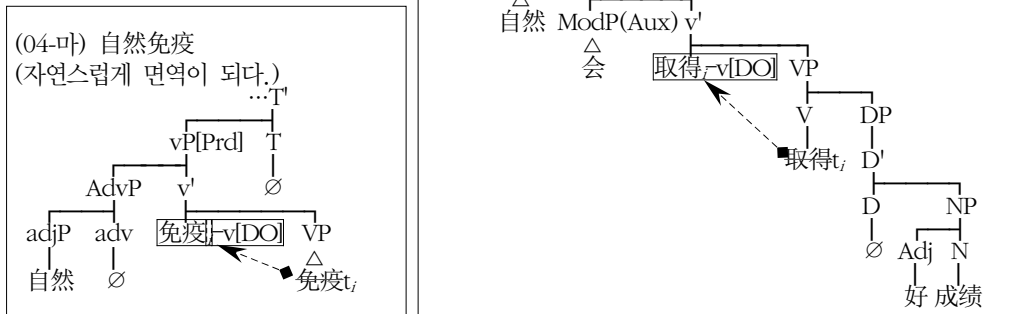


18) “【自由】[ziyóu] ①『名』在法律规定的范围内，随自己意志活动的权利：人身自由|自由平等。②『名』哲学上把人认识了事物发展的规律性，自觉地运用到实践中去，叫做自由。③『形』不受拘束；不受限制：自由参加|自由发表意见。”(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七版)，商务印书馆，2016，1740쪽).

19) 【由】(말미암을-유): “『설문해자』에는 보이지 않고, 『이야』에서 이미 ‘……로부터’라는 문법소로 쓰였으며……『광운』에서는 ‘경유하다’, 『집운』에서는 ‘말미암다(因)’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후 ‘……을 따라서’, ‘……에 근거해’ 등의 뜻도 나왔다. 일본의 『漢字源(한자원)』에서는 由(술통-유)와 같은 데서 생겨난 글자로, 술그릇의 주둥이에서 술이 나오는 모습을 그려 상형자로 풀이하기도 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498~4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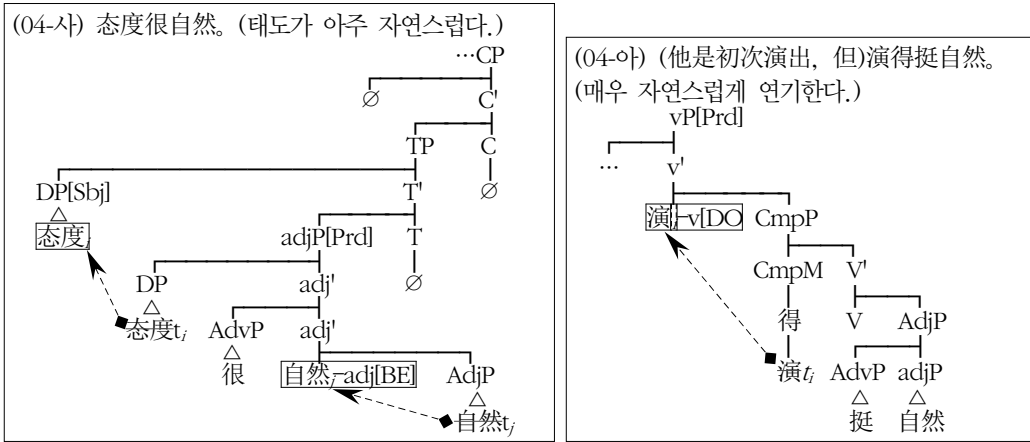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 ‘自然’²⁰⁾은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4개 품사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²¹⁾ ‘自然’의 ‘自’와 ‘然’은 각각 ‘鼻’와 ‘燃’에서 가차되어 분화한 것이므로 수형도에서 ‘≌’(연결은 되지 않음)로 표시하였다. (04-가~라) 모두 명사성 어근인 ‘自’와 형용사성 어근인 ‘然’이 병합하여 형용사성을 띠는 어근구(√P)로 도출되는 점은 같다. 그러나 ‘然’이 다시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y)로 투사되는 과정에서 명사성, 형용사성, 부사성, 접속사성으로 나뉘고 있다. 이때 겹으로 볼 때는 같은 형태이므로 이들이 명사성 접미사인지, 형용사성 접미사인지, 부사성 접미사인지, 접속사성 접미사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04-마~자)처럼 통사구조로 생성·도출될 때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自然’도 형태-통사적 특징을 내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분산형태적 통합합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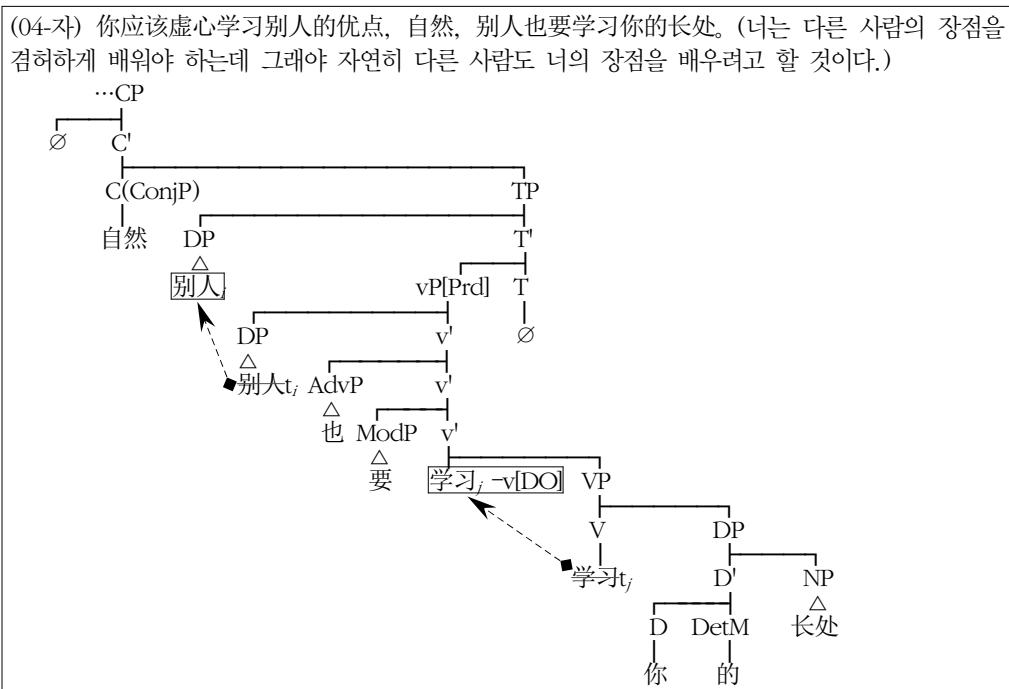


20) ‘自然’ 관련 수형도는 장호득(2021b, 209쪽)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1) “【自然】' [zìrán] ①『名』自然界：大自然。②『形』自由发展：不经人力干预：自然免疫 | 听其自然 | 自然而然 | 你先别问，到时候自然明白。③『副』表示理所当然：只要认真学习，自然会取得好成绩。④『连』连接分句或句子，表示语义转折或追加说明：你应该虚心学习别人的优点，自然，别人也要学习你的长处。”“【自然】' [zì·rán]『形』不勉强；不局促；不呆板：态度很自然 | 他是初次演出，但演得挺自然。”(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七版)，商务印书馆，2016，17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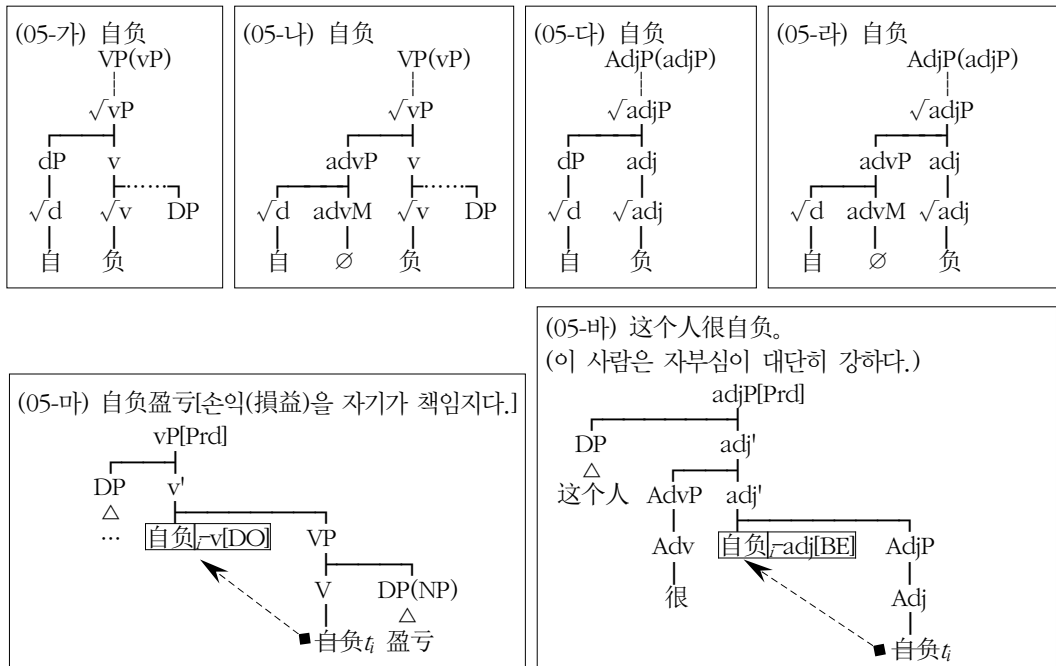
(04-마)는 ‘自然’이 형용사(형용사성 구)이지만 부사어 표지 등의 도움 없이 그대로 부사구로 투사되고 있는 수형도이고, (04-바)는 부사가 바로 부사어로서 뒤에 오는 어구를 수식하고 있는 수형도이다. (04-사)는 형용사 ‘自然’이 부사 ‘很’의 수식을 받으면서 경형용사구를 형성하여 술어로 도출되고 있다. (04-아)는 형용사 ‘自然’이 부사 ‘挺’의 수식을 받으면서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보어로 도출되고 있다. 아래 (04-자)는 ‘自然’이 보문소(C), 즉 접속사로서 보문을 연결하고 있는 수형도이다.



이상에서 볼 때 ‘自然’도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으로 겉모습의 형태로만 보면 구분이 되지 않지만 내부 구조를 재분석한 분산형태적 통합합성어의 관점에서 통사적 생성·도출 과정과 연결시켜 살펴보면 그 형태-통사적 특징이 내현적으로 갖추어져 형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사적 층위의 특징까지 내면적으로 아우르는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적 정체성을 보여 주고 있다.

Ⅲ. 동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

아래에서는 동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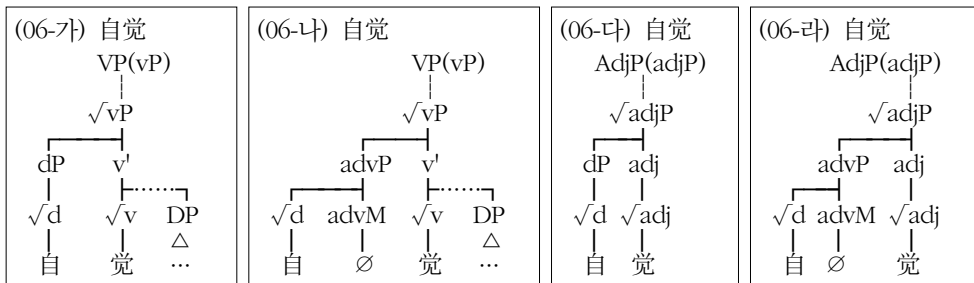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따르면 ‘自負’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뉘어 2개의 표제어로 실려 있다.²²⁾ (05-가)는 한정사성 어근 ‘自’가 투사되어 동사성 어근 ‘負’²³⁾와 병합하여 동사성 어근구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22) “【自負】¹ [zìfù] 〔动〕自己负责：自负盈亏 | 文责自负。” “【自負】² [zìfù] 〔形〕自以为了不起：这个人很自负。”(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37쪽). ‘自負’ 관련 내용과 수형도는 장호득(2021c, 190~ 191쪽)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3) “【負】¹ 背(bēi)：负荆 | 负重.² 〔动〕担负：负责任 | 身负重任.³ 依仗；倚靠：负隅 | 负隅固守.⁴ 〔动〕遭受：负伤 | 负屈.⁵ 享有：久负盛名.⁶ 〔动〕亏欠；拖欠：负债.⁷ 背弃；辜负：负约 | 忘恩负义 | 有负重托.⁸

그런 과정에서 ‘自+X’ 구조의 ‘自負’를 재분석하면 역할제 모듈(Module) 구현 층위에서 ‘自’는 주어 역할을 하고 ‘負’는 ‘부담하다’²⁴⁾의 뜻으로 술어 역할을 하여 목적어인 DP를 가질 가능성을 내현적인 분산형태 방식으로 갖고 있다. 즉, 조응사와 달리 (05-가)의 ‘自負’는 대상역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일반 동사의 특징을 띠고 있다. (05-나)는 (05-가)와 비슷하게 생성·도출되지만 차이점은 (05-나)가 한정사성 어근 ‘自’와 영형태 부사어격 표지가 병합되어 부사성 구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05-다, 라)는 모두 형용사성 어근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수형도이다. 차이점은 ‘自’가 한정사성 구와 부사성 구로 생성·도출된다는 데 있다. (05-마, 바)는 내현적 분산형태적 통합합성어가 통사구조로 생성·도출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수형도이다. (05-마)의 ‘自負’는 뒤에 재귀성이 아닌 일반 명사인 ‘盈亏’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한정사구로 투사되고 있으므로 재귀대사가 아닌 일반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예문으로 나오는 “文责自负(wén zé zì fù)”(『성어』 문장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도 목적어에 출현하는 대상역이 주제화되어 ‘自負’ 앞에 도출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05-바)의 ‘自負’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형용사구로서 흔적을 남기고 경형용사구로 도출되면서 부사 ‘很’의 수식을 받으면서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05-바)의 ‘自負’는 (05-마)의 동사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형용사성 통합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自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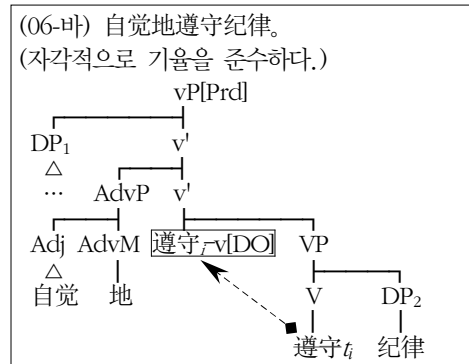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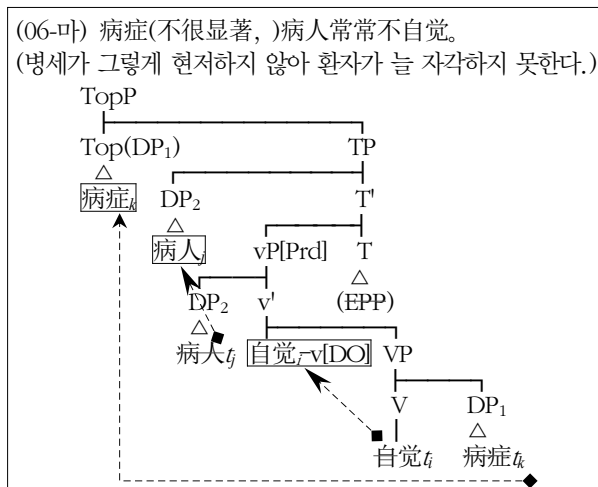
(06)의 ‘自觉’도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는 동사와 형용사로 실려 있으며,²⁵⁾ 그 형태-통사적 통합합성어의 생성·도출 과정도 (05)와 궤를 같이하므로 소략하기로 한다. (06-가)는 ‘自’가 한정사 어근인 관계로

【动】失败(跟“胜”相对): 胜负 | 负于客队。⑨【形】属性词。小于零的(跟“正”相对): 负数 | 负号。⑩【形】属性词。指得到电子的(跟“正”相对): 负极 | 负电。⑪ (Fù)【名】姓。”(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407쪽).

24) 【負】(질-부): “회의. 원래는 人(사람-인)과 貝(조개-패)로 구성되어, 자량삼다는 뜻이었었는데, 자형이 조금 변해 지금처럼 되었다. 사람(人)이 재물(貝)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기대고 자량함을 말한다. 돈이 많을 때는 등이나 어깨에 짊어지기도 했는데, 이로부터 ‘짊어지다’의 뜻이, 다시 負擔(부담)이나 책무의 뜻이 나왔다. 일설에는 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로부터 빚을 짊어지다와 책무의 뜻이 나왔다고도 한다. 이후 勝負(승부)에서처럼 ‘지다’는 뜻도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295쪽).

25) “【自觉】[zìjué] ①【动】自己感觉到: 肺结核的初期, 病症不很显著, 病人常常不自觉。②【形】自己有所认识而觉悟: 自觉自愿 | 自觉地遵守纪律。”(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37쪽).

‘자신이 깨닫다’의 뜻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06-나)는 ‘自’가 한정사 어근에서 다시 부사구로 투사되므로 ‘스스로(친히) 깨닫다’의 뜻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동사 ‘觉’(깨닫다, 느끼다)²⁶⁾의 목적어인 한정사구를 가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06-다, 라)는 ‘자신이 깨닫다(느끼다)’, ‘스스로 깨닫다(느끼다)’에서 최종적으로는 형용사성 어근구, 즉 형용사인 ‘자각적이다’, ‘자발적이다’의 뜻으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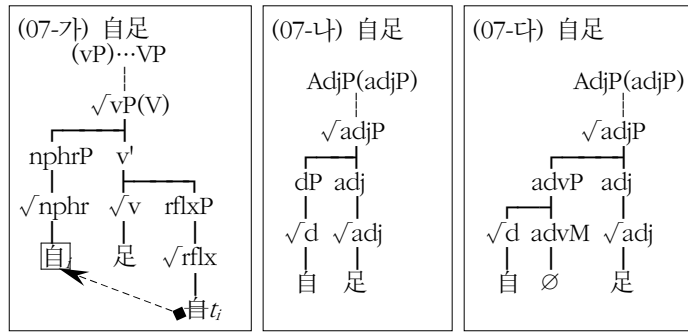
(06-마)는 ‘自觉’이 재귀성이나 조응성을 띤 동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수형도이다. 재귀성을 띠려면 ‘自觉’ 뒤에 ‘自’의 재귀성을 띠는 대상역 목적어가 흔적을 남기므로 목적어가 올 수 없으며, 이 재귀성과 연계되면서 동시에 행위자 의미역 주어와 동일 지표성을 가져야 조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06-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DP₁의 ‘病症_k’이 흔적을 남기고 주제어(Top)의 ‘病症_k’과 동일 지표성을 가지고 있고, ‘病人’이 ‘自觉’의 ‘自’와 동일 지표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自’가 대상역과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自觉’의 ‘自’를 일반 대명사 또는 부사로 해석해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은 “老人自觉病已大好, 要求出院。”(노인은 병이 이미 크게 호전된 것을 스스로 느끼고 퇴원을 요구했다.)와 “他自觉能力有限, 辞去了领导职务。”(그는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지도자 직무를 그만두었다.)의 예문²⁷⁾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즉, ‘自觉’ 뒤에 재귀사가 아닌 ‘病已大好’와 ‘能力有限’과 같은 목적어가 온다는 것은 ‘自觉’가 재귀성이나 조응성을 띤 동사가 아니라 타동성만 지닌 일반 동사임을 보

26) 【覺】(깨달을-각): “형성. 見(볼-견)이 의미부이고 學(배울-학)의 생략된 모습이 소리부로, ‘깨닫다’(寤·覺-오)는 뜻인데, 끊임없는 배움(學)이 보는 것에 선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학습을 통해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나 선현을 뜻하게 되었고, 느끼다, 살펴서 알다 등의 뜻이 나왔다. 간화자에서는 위부분을 줄여 觉으로 쓴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7쪽).

27) 施光亨·王绍新主编, 『汉语教与学词典』, 商务印书馆, 2011, 1422~1423쪽.

여 주는 것이므로 ‘自’는 일반 대명사나 부사로밖에 볼 수 없다. (06-바)는 형용사인 ‘自觉’가 부사어격 표지(AdvM)인 ‘地’와 병합하여 부사구로 투사된 후 경동사 ‘遵守’를 수식하는 구조를 나타낸 수형도이다. 이것은 (03-라) ‘自由发表意见’의 ‘自由’가 형용사로서 부사어 표지 없이 바로 부사구로 투사되는 경우와 다른 경우이다. 여기에서 형용사가 부사어로 도출되면서 부사어격 표지인 ‘地’와의 병합 여부는 내현적 통합합성어의 특징으로서 통사적 도출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또 ‘自恃’²⁸⁾(자신을 너무 믿고 교만하다)도 ‘自觉’와 유사한 통합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서면어로 표시되어 있어서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는 삼지 않고 생략한다.

다음으로 ‘自足’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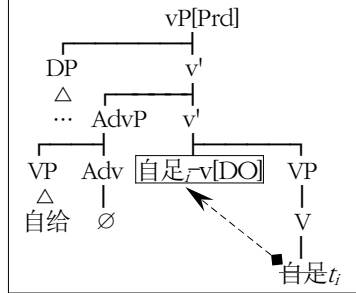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따르면 ‘自足’도 동사와 형용사로 풀이하고 있는 다품사어이다.²⁹⁾ (07-가)를 분산형태론 관점에서 재분석하면 ‘足’ 뒤에서는 ‘自’가 재귀사성 어근($\sqrt{\text{refl}}$)으로 투사되면서 흔적을 남기고 ‘足’ 앞에서는 ‘自’가 통사적 층위에서 주어로 투사될 행위자와 동일 지표성을 띠는 조응성을 갖는다. 즉, 이것은 (07-가)의 동사성 어근구($\sqrt{\text{vP}}$) ‘自足’이 재귀성을 갖는 대상역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07-나, 다)는 형용사성 어근구($\sqrt{\text{adjP}}$)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 주는 수형도이다. (07-나, 다)는 (06-다, 라)의 ‘自觉’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한다.

(07-라)의 ‘自足’은 조응성, 재귀성 동사로서 경동사구로 생성·도출되고 있으며, (07-마)의 ‘自足’은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형용사구의 한 부분인 형용사로 투사되어 명사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自给自足’은 [[给_{Vtr(Prd)}+自_{IO}+Ø_{DO}] [足_{Vtr(Prd)}+自_{DO}]] → [[自给_{Synthetic Compound}] [自足_{Synthetic Compound}]]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自给’은 ‘给’이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自’는 있지만 직접 목적어가 드러나지 않은 구조이고, ‘自足’은 ‘自’가 타동성 동사 ‘足’의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로서 구현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런 다음 ‘自’가 ‘给’와 ‘足’ 앞에 위치하여 조응성을 띠면서 통합합성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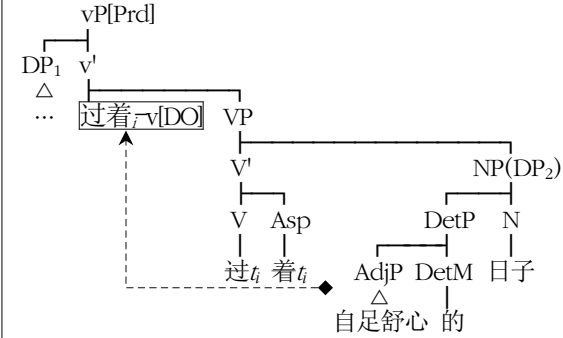
28) “【自恃】[zìshì] 〈书〉 ①【形】过分自信而骄傲自满；自负。②【动】倚仗；仗恃：自恃功高。”(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39쪽).

29) “【自足】[zìzú] ①【动】自己可以满足自己的需要：自给自足。②【形】内心满足：过着自足舒心的日子。”(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41쪽).

(07-라) 自给自足(자급자족)



(07-마) 过着自足舒心的日子。(자족하고 편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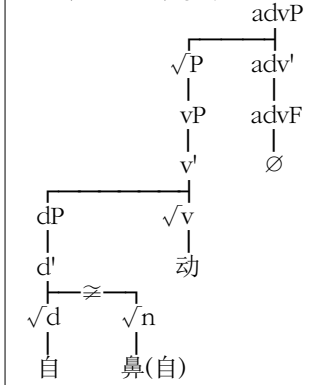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듯이 분산형태론 관점에서의 재분석을 통해 ‘自+X’ 구조가 분산형태적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됨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내현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어휘 배열 구조 층위, 사건구조화 층위, 역할체 모듈 구현 층위 등과 종합적으로 살펴야 재구성, 조음성, 대사성, 명사성, 동사성, 형용사성, 부사성 등의 특징을 확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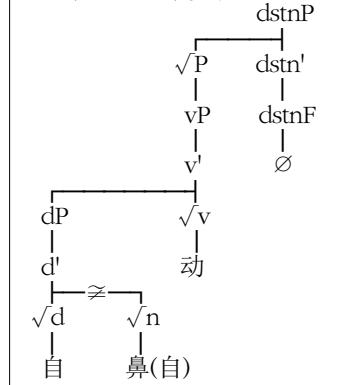
IV. 형용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自+X’ 구조

다음으로 형용사를 포함한 다품사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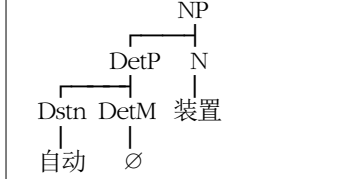
(08-가) 自动(주동적으로)



(08-나) 自动(자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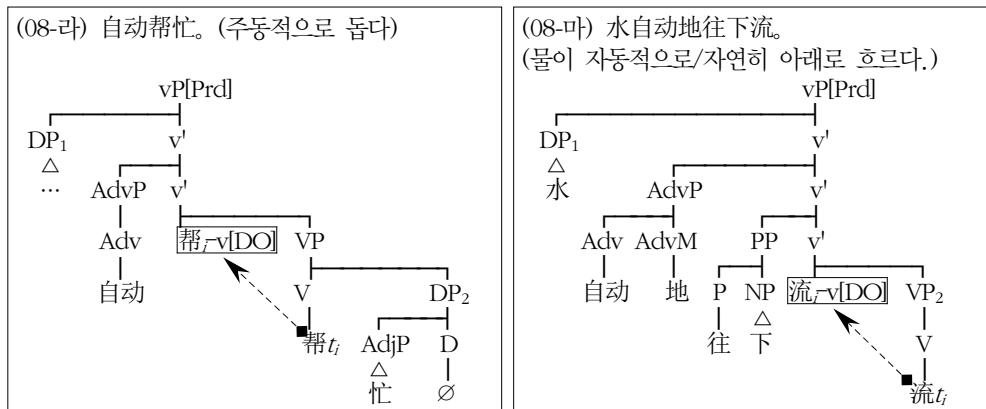


(08-다) 自动装置(자동 장치)



30) ‘自足’ 관련 부분은 장호득(2021c, 188~189쪽)을 논지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따르면 ‘自动’은 형용사(구별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이다.³¹⁾ (08-가)의 ‘自动’을 재분석하면 한정사성 어근($\sqrt{d}$) ‘自’가 동사성 어근($\sqrt{v}$) ‘动’과 병합하여 어근구($\sqrt{VP}$)로 투사된 후 다시 영형태의 부사성 기능 범주와 함께 부사성 구(advP)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08-나)는 (08-가)와 같은 투사 과정을 거치지만 마지막에 영형태의 구별사성 기능 범주와 함께 병합하여 구별사성 구(dstnP)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自动’은 자면(字面)상으로는 오직 동사가 없다. 또 그 자체로는 형용사인지는 부사인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08-다, 라)와 같은 기본 어휘 배열 층위, 사건구조화 층위 등의 생성·도출 과정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전형적인 내현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08-가, 나)의 ‘自动’도 내현적 분산형태 특징을 지닌 통합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08-다)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自动’이 구별사로서 관형어격 표지 ‘的’ 없이 명사 ‘装置’와 병합하여 명사구(NP)를 생성·도출하고 있는 수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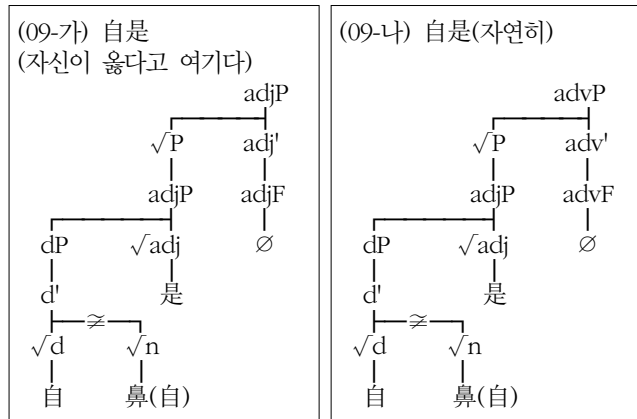


(08-라, 마)는 ‘自动’ 모두 부사로서 뒤에 오는 경동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그런데 (08-라)는 ‘自动’이 부사로서 바로 부사구로 투사되는 반면 (08-마)의 ‘自动’은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따르면 부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부사어격 표지 ‘地’와 병합하여 부사구로 투사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이런 모순은 앞으로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의 수정판에서 고쳐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형용사가 부사어격 표지 ‘地’ 없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듯이 2음절 부사에 부사어격 표지 ‘地’가 붙는 것도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의 경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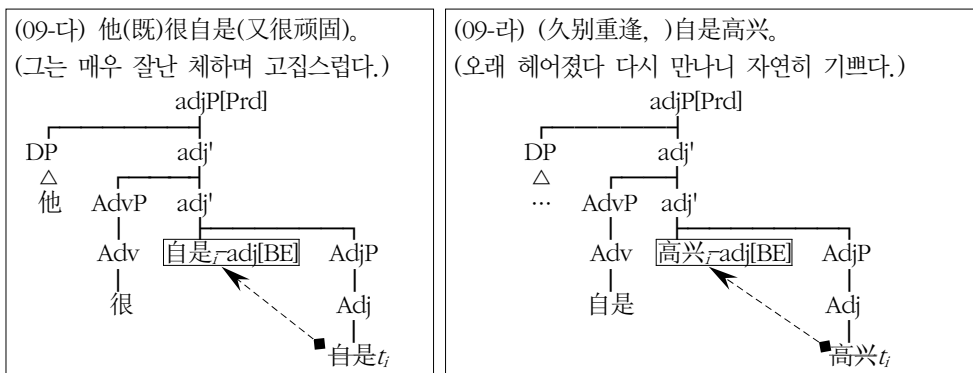
다음으로 ‘自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1) “【自动】[zìdòng] ①『副』自己主动：自动参加|自动帮忙。②『副』不凭借人为的力量的：自动燃烧|水自动地往下流。③『形』属性词。不用人力而用机械装置直接操作的：自动化|自动控制|自动装置。”(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36쪽).

32) 물론 이런 현상은 다양한 각도-음절 수, 내부의 의미 구조 등-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고의 관점도 하나의 분석적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따르면 (09-가, 나)의 ‘自是’³³⁾는 2개의 표제어로 분리되어 실려 있으며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함께 가진 다품사어이다. (09-가)는 ‘自是’의 ‘自’가 한정사성 어근($\sqrt{d}$)으로 투사되어 형용사성 어근($\sqrt{adj}$) ‘是’와 병합하여 어근구($\sqrt{P}$)로 투사되고 다시 영형태의 형용사성 기능 범주와 합병하여 형용사성 구인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09-나)도 (09-가)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마지막에 영형태의 부사성 기능 범주와 합병하여 부사성 구인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이 ‘自是’도 자면으로만 보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할 수 없는데 (09-다, 라)처럼 통사구조로 생성·도출되면 그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현대 중국어의 ‘自+X’ 구조가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9-다)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自是’가 흔적을 남기고 경형용사구로 투사된 후 부사구인 ‘很’의 수식을 받고 있는 구조를 나타낸 수형도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自是’는 당연히 형용사, 즉 형용사성 통합합성어

33) “【自是】[zìshì] 副 自然是：久别重逢，自是高兴。” “【自是】[zìshì] 形 自以为是：他既很自是又很顽固。”(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1739쪽).

이다. (09-라)의 ‘自是’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흔적을 남기고 경형용사구로 투사된 ‘高興’을 수식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사구로 투사되는 부사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형용사와 부사로 된 통합합성어 ‘自+X’ 구조도 의미적으로는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면상 또는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분하는 방식은 통사구조로 생성·도출되었을 때 그 기능과 역할 등의 특징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自+X’ 구조는 분산형태적 특징을 내현적으로 가지면서 통사적으로 생성·도출될 때 그 특징을 발현하고 있다. 즉, ‘自+X’ 구조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분산형태적 재분석과 함께 통합합성어의 통사적 특징도 같이 살피는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고는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보이는 ‘自+X’ 구조 가운데 2개 이상의 품사를 갖는 다품사어를 전수 조사(全數調査)하여 추출한 후 목록화하고 분류하여 그 형태-통사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自+X’는 내부 구조의 재분석을 통해 형태-통사적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은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된다.

둘째, 다품사어인 ‘自+X’ 구조는 그 형태만으로는 다품사 중의 개별 품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구조의 통사적 생성·도출 과정을 통해 ‘自+X’ 중 ‘自’의 재귀성과 조음성, ‘自+X’의 명사성, 동사성, 형용사성, 부사성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그 정체성을 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통사적 도출 과정에서 형용사가 격 표지의 도움 없이 부사어로 도출된다든지, 부사가 부사어격 표지 ‘地’와 함께 병합하여 다시 부사어로 도출되는 현상은 ‘自+X’ 구조의 내현적 분산형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다품사어 ‘自+X’ 구조에서 품사를 구분 짓는 명확한 형태적·구조적 기준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 구조의 재분석을 통해 그것이 내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 특징을 가지면서 형태론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층차까지 연결되어 형태-통사적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석, 『통사론강의』, 형설출판사, 2000.

김용석, 『최소주의 재귀사 문법』, 한국문화사, 1999.

- 김종호, 『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 박소영, 「한국어 통합합성어의 통사구조와 형태: 통사론의 접면」, 『생성문법연구』 21: 4, 한국생성문법학회, 2011.
- 박소영,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어 문법」, 『우리말연구』 49, 우리말학회, 2017.
- 유연균, 「중국어 재귀대명사의 기능 및 그 변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장호득a,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의 생성과 도출」, 『비교문화연구』 6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1.
- 장호득b,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과 그 동형 한자어의 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문학연구』 82, 한국중문학회, 2021.
- 장호득c, 「현대 중국어 동사 ‘自+X’, ‘X+自’의 형태-통사적 생성과 도출」, 『중국학』 74, 대한중국학회, 2021.
-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 徐杰, 『普遍语法原则与汉语语法现象』, 北京大学出版社, 2001.
- 徐烈炯, 『生成语法理论』, 上海外语教育出版社, 1988.
- 石定栩, 『乔姆斯基的形式句法—历史进程与最新理论』,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2002.
- 宋国明, 『句法理论概要』,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7.
- 施光亨·王绍新主编, 『汉语教与学词典』, 商务印书馆, 2011.
- 温宾利, 『当代句法学导论』,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2.
- 陆险明·沈阳, 『汉语和汉语研究十五讲』, 北京大学出版社, 2004.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 教育部语言文字应用研究所计算语言学研究室, <http://corpus.zhonghuayuwen.org/CnCindex.aspx>, (검색일: 2021. 02. 15.)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The Morpho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zì(自)+X’(multi-parties of speech) in Modern Chinese

Chang, Hodeug*

This paper aims to identify its morphosyntactic features by extracting, cataloging, classifying, and analyzing all of the multi-parties of speech vocabulary (the ‘zì+X’ structure) listed on “Xiàndài Hànyǔ Cídiǎn”(7th edi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zì(自)+X’ structure could be recognized by reanalysis of its internal structure. Its identity is that it is a structure that generates and derives an covert distributed morphological compound.

Second, the ‘zì(自)+X’ structure alone cannot specify each of the individual parts of speech in the multi-parties of speech vocabulary. Thus, the structure’s syntactic generation and derivation process requires a comprehensive look at the anaphora and coindexing of ‘zì(自)+X’, the features of noun, verb, adjective and adverb in ‘zì(自)+X’ to identify its identity.

Third, in the process of syntactic derivation, adjectives are derived as AdvP without adverbial marker, or adverbs are merged with the adverbs with the adverbial marker ‘de(地)’ to be derived as AdvP. This phenomenon also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vert distributed 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zì(自)+X’ structure.

In conclusion, the ‘zì(自)+X’ structure of Modern Chinese does not reveal clear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criteria that classify parts of speech. However,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structure showed that it had the characteristics of an covert distributed morphological synthetic compound word and not only stayed in the morphological dimension, but also connected to the syntactic layer.

[Keywords] Modern Chinese, multi-parties of speech, ‘zì(自)+X’, synthetic compound, morphosyntactic

* Professor, Chinese Studies,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Dankook University